

사진을 바느질하다, 입체를 입히다

젊음! 그 열정과 꿈 (5) 사진작가 안희정씨

구멍 난 양말도 꿰매지 않는 시대, 사진작가 안희정(36)씨는 사진을 바느질하는 유별난 여자다.

가령, 집이나 건물을 찍어 실크 천에 출력한 뒤, 재봉틀로 천을 재봉하고 솜을 넣어 큐브 형태로 완성하는 방식이다. 바느질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주변에서는 ‘사진공예’라는 신조어를 붙여주기도 했다.

지난 2일 그녀의 작업실이 있는 광주시 동구 장동의 한 건물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는 ‘찰칵’ 카메라 셔터 여닫는 소리보다, 부라더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사진이라는 게 입체적인 피사체를 평면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꼭 그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미가 있어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바느질 연작을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2007년 전남도립옥과 미술관에서 열린 ‘사진은 반응이다’라는 전시회에서였다. 삼각김밥과 치즈케이크를 천에 출력해 실물 크기로 만들었는데, 작품에서 묘한 울림이 전해졌다. 입체의 피사체를 평면인 사진에 담아, 다시 입체의 결과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성(物性)의 변화와 전이가 주는 감동도 상당했다.

“도시의 건물은 건조하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천에 출력해 완성된 작품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천 안에 두툼한 솜을 넣어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포근한 감촉도 주고요.”



사진은 비교적 사실적 표현이 가능한 장르다. 이 때문에 도심 건물의 견고한 이미지가 고스란히 작품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이 대목에 집중하고 있다. 딱딱한 건물을 찍었지만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상상력을 덧대, 말랑말랑한 ‘진짜’ 같은 가짜 건물을 재창조한 것이다.

자유로운 상상은 문학의 덕을 많이 봤다. 그녀의 작업실 한쪽 벽은 ‘창비시선’ 등 소설과 시집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고향 장흥에서 고등학교



천과 솜을 이용한 이색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사진작가 안희정씨가 내년 개인전을 앞두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집·건물 등을 사진 찍어 천에 출력 한 뒤 재봉 ‘사진공예’

건조한 느낌을 따뜻하게 ‘진짜 같은 가짜 건물’로 재창조

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소설과 시를 쓰던 문학소년이었다. 또 한 때 대학에서 실내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바느질을 잘하게 되는 큰 경험이었다.

“작가로서 꿈은 소박해요, 늙어서도 ‘내’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이 소박한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자주 들어요.”

그녀의 ‘소박한 꿈’이 꼭 이뤄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녀는

삶 또한 순수했다. 아직 작품의 가격조차 매기지 못했다고 한다. 오로지 시간을 내 사진을 찍고, 일을 해서 돈이 생기면 재료를 사고, 바느질을 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다.

그녀는 8년째 고양이 ‘솜’과 함께 살면서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녀의 스승인 사진작가 박일구씨가 운영하는 사진공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는 주로 사진을 찍거나 바느질을 하며 보낸다.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작업에 할애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은 전시회를 열자”는 생각 때문이다.

요즘 그녀는 4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역시 새롭게 선보일 작품도 바느질이다.

광주대 사진영상학과를 나온 뒤 지난해 신세계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비롯해 3차례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에는 광주신세계미술상을 수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쇄문화 우수성 널리 알린다

29일까지 광주 사직도서관서 ‘직지 특별전’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9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사직도서관 1층 작은갤러리.

광주광역시립도서관(도서관장 한하민)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주고인쇄박물관과 공동으로 ‘직지와 함께하는 옛 인쇄문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백운화상 불조 직지심체요절’ 복원판과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한 직지 디오라마와 영인본(하), 기록물과 관련만화 등이 전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인쇄문화가 발달하게 된 경위, 신라·고려·조선시대 시대별 인쇄문화, 세계의 인쇄문화 비교 연표 등 인쇄문화에 대한 체계



금속활자본 ‘직지’의 표지

계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주말은 오후 5시까지이며 체험 프로그램 희망자는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777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D 영화 콘텐츠 출품작 공모

한국국제영화제 조직위, 19일까지 접수

광주시와 사단법인 3D 한국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D 영화 콘텐츠의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는 19일까지 3D 콘텐츠 출품작을 공모한다.

이번 출품작 공모는 전 세계 3D 영화 제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3D 영화 방식(Cinema Format)으로 제작된 콘텐츠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출품작 중 장·단편 대상 및 각자, 기술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시상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

며, 최우수작품은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오는 19일까지(도착분에 한함)이며 3D 한국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3dkiff.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조직위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3D 한국국제영화제 2011 광주’ 폐막식에서 시상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비엔날레재단, 국내외 전시기획자 양성

8일~9월 3일 국제큐레이터코스, 19개국 24명 선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8일~9월 3일 국내외 전시 기획자를 양성하는 국제큐레이터코스를 연다.

이번 과정에는 실사를 통해 선정된 19개국 24명이 참여하며, ‘열린 소통 공간으로서 전시’를 주제로 펼쳐진다.

지도교수는 우테 베타 바우어 MIT 교수가 맡았고, 수업은 참여자위크

숍, 국제미술문화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과 큐레이터들의 강의, 수도관과 광주권 미술문화 현장탐방, 디자인비엔날레 전시설치 참여, 그룹스터디 등으로 짜여 있다.

이흥우 재단 대표이사외의 ‘광주비엔날레 운영과 비전’에 관한 특별 강의

를 비롯해 에바 프란치 길라버트의 ‘현대미술과 건축’, 안드레아 벨리니의 ‘가스펠로 디 리볼리의 전시기획’ 등 전문가 강의도 결들여진다.

특히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준비현장과 연계해, 기획자들의 전시기획 의도와 과정들을 밀도 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송효상 공동감독과 배형민 수석큐레이터, ‘무명’ 담당 큐레이터 브랜던 맥게트리 등의 각 기획자들이 자신들의 담당 섹션 및 전문분야에 관하여 개별 또는 공동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트마켓 ‘가야미’ 13일 예술의거리서 만나요

광주아트마켓 ‘가야미’가 오는 13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다.

지난 7월 15일 개막 후 중앙초등학교 인근에서 행사를 열었던 주최측은 13일부터 장소를 광주예술의 거리 동부경찰서~중앙초등학교 무대 구간으로 옮겨 진행한다.

또 운영 시간 역시 기존의 오후 1시~5시에서 오후 4시~8시

까지로 바뀌 마켓을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가야미는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하는 아트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u.co.kr

광주국제교류센터, 정진상 교수 초청 강좌

광주국제교류센터(소장 신경구)는 16일 오후 7시 광주국제교류센터(전원빌딩 5층)에서 정진상(53·경상대 사회학과·사진) 교수를 초청해 ‘쿠바이웃공동체로부터 한국교육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국제이해강좌를 갖는다.

임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 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교육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쿠바교육혁명의 핵심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Ed-



ucation for all)을 지향하는 쿠바 교육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한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매월 광주외국인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가장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선착순 40명 모집.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셰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약오리 백숙

형암육수 샤브샤브

효소 월드덕 찜

한방오리구이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U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